

# 憲法の民主化와 함께 産業體의民主化를



馬景錫  
〈韓國엔지니어클럽 명예會長〉

우리 産業界의 여러 技術人과 각종 技能人, 뱀장이, 미장이, 木工, 煉瓦工, 機械工, 重機工, 電工, 計器工, 컴퓨터공, 측량사, 제도사, 설계사들이 비료, 정유, 방직,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공장을 비롯하여 發電所, 製鐵所, 製鍊所, 造船所, 高速道路, 港灣 등을 짧은 工期에 싸게 건설하였고, 각 工場 運轉工들이 不徹晝夜 잘 稼動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여 증가되는 國內 수요를 충당할 뿐더러 年에 200億弗 이상 그 公業제품을 輸出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産業人들이 熱砂의 中東 건설현장에서 땀을 흘린 代價로 지난 數年間に 數百億弗의 귀중한 外貨를 벌어들였다.

그리하여 20여년 전인 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개인소득이 年에 60弗 미만으로서 封建的인 後進農業國이었던 불모의 이땅에 上記한 공장들을 건설하였고 年中 無休로 가동시켜서 設計容量 이상의 생산을 하여 個人所得 2,000弗인 中進工業國의 近代産業社會를 우리 産業人들이 건설하여 民主社會의 기반을 만들었다.

지난 4월 30일에 全斗煥 大統領께서 與野代表들을 靑瓦臺에 招致하고 88년 이전에라도 改

憲하여 새 憲法에 따라 次期 大統領을 선출할 의향이 있음을 公式로 밝혔다. 憲政이 中斷되는 일이 없이 民主社會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所信을 굽히고 長意를 받아들인 신 처음 大統領이다. 近代史에 明記 되어야 한다. 이것이 先例가 되고 傳統이 되어서 民主國家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相反된 의견을 갖고 兩極을 固執하던 與野指導者들이 小我를 버리고 憲特委를 구성하는 案을 國會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民主憲法에 대한 熱火같은 國民與望과 社會與論을 받아들인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日帝 36년간 우리가 그렇기도 願했던 獨立을 日本抑壓때문에 爭취하지 못하였고 憲政 38년간에 民主憲法을 모든 國民들이 願하였지만 그 당시 大統領과 執權黨이 民意를 억압하였고, 또한 집권연장과 독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憲法改惡을 數次한 것이 우리의 憲政史였다. 이제 그 억압이 풀려 改憲論議가 만발하고 있고, 이번에는 반드시 民主憲法이 제정될 것이다. 民主憲法制定은 與野指導者들에게 맡기고 一般國民들은 자기 자기분야에서 그 분야의 民主化를 스스로

성취하여야 비로소 우리 社會가 民主化 될 수 있을 것이다.

百萬 産業人들이여! 우리는 이 땅에 中進工業國의 근대산업사회를 건설한 主役이다. 우리 産業分野의 民主化 作業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고 또 하여야 한다. 民主憲法이란 民主國家에서 국민들이 국민을 위하여 민주적으로 국민을 통치할 수 있는 長을 國民中에서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會社에서는 社員중에서 가장 경영능력이 있는 會社社員이 社長에 任命될 수 있어야 民主的인 會社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中小企業은 論外로 하더라도 大企業 中에서 産業体만은 國營企業의 경우에는 政府가 政策的으로 國家에 功勞가 큰 分들을 長으로 任命한다. 個人企業의 경우 社主가 그 친척들을 社長으로 任命하는 경우가 많다 즉 韓國에서는 企業과 經營이 分離되어야 한다는 經營原理를 産業体만은 외면하고 있다.

化工을 專攻하고 40년간이나 化學工場建設과 그 운영에 專念하면서 韓國의 化學工業과 같이 筆者는 작은뼈가 굵어졌다. 그간 財閥·國營企業에서 社主 또는 政府가 任命한 非産業人과의 經營上 야기되는 大小의 異見調整에 늘 고심하여 왔다. 그분들이 推進하려는 不實企業과 非理에 반대하였지만 正當한 의견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非理에 가담할 수 없어 不得已 退社한 경우도 4번이나 있었다. 따라서 남달리 轉職이 많았다.

### ◇企業과 經營의 分離

美國의 公共借款을 얻어 사업을 추진 하려면 그 事業部長을 임명하여 借款先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그 事業部長 책임하에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事業部長의 權限과 義務가 규정되어 있다. 즉, 企業과 經營을 분리하여 後進國에서 있을 수 있는 事業主의 非理와 事業의 不實化를 事前에 방지하고 있다.

筆者가 仁川에 건설한 소다灰工場을 우리나라 최초의 借款(1959年 DFL資金 560万弗)으로 추

진하였다. 그 事業의 事業部長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事業主가 강요하는 많은 非理를 배제할 수 있었고 所信대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후 忠州에 건설한 第6 肥料·蔚山에 建設한 第一石油化學·麗川에 건설한 第二石油化學의 추진은 筆者의 참모들이 事業部長이 되어 그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여하한 政治的인 압력은 물론 政府나 社長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工程選定 借款契約 建設工事契約 등을 우리 産業人들의 所信대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짧은 工期에 國際建設單價의 6 할에 9 개工場을 건설하여 72년 10월에 9 개工場 合同竣工式을 가졌다. 73년 초부터 모든 공장들이 대체적으로 設計容量의 생산을 하여 生産初期부터 거대한 이익을 올리고 “石油化學 黃金時代”를 우리 産業人들이 창조하였다. 이어 73년 7월에 浦項에 綜合製鐵所의 여러 工場들을 國際建設單價의 切半이하에 건설하여 성공적으로 생산함으로써 重化學工業을 이 땅에 정착시킨 것도 우리 産業人이다.

一次石油波動은 全世界의 非產油國에 커다란 經濟的인 타격을 주었고 고도의 經濟成長을 계속하던 韓國·台灣·日本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따라서 74년에 台灣·日本을 비롯하여 모든 非產油國이 Minus經濟成長을 기록하였으나 유독 韓國만은 上記 工場들의 성공적인 건설과 가동으로 8%의 높은 GNP 성장을 할 수 있어 “漢江邊의 奇蹟”을 창조할 수 있었다. 이 奇蹟은 모든 技術人과 각종 技能工들이 年 365일 無休로 많은 공장을 건설하고 가동에 전념한 所産이다. 우리 百萬 産業人의 공동의 작품이고 공적임을 우리 사회는 인정하여야 한다.

金屬活字를 우리가 독일보다 약 200년 앞서 사용하였다는 史實이 있지만 그 發明者는 洋의 東西를 莫論하고 “구텐베르크”로 되어 있다. 거북선은 어느 “장이”가 고안·설계하였으며, 어느 장이가 용접하고 건조하였는가? 거북선을 이용하여 倭敵을 격퇴한 李舜臣將軍은 위대한 영웅으로 歷史教科書에 明記되어 있고, 南·北韓 6 천만 동포들이 존경을 하고 있다. 八萬大

藏經은 어느 장이가 그렇게 정교하게 제작하고 보관하였기에 750년이 지난 오늘도 原形대로 보관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세계적으로 존경받을 많은 發明者들이 우리나라에서 모조리 은닉된 이유는 어디 있는가? 우리나라는 古來로 技術人 技能人들을 “장이”라고 부르며 賤視 하여 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룩한 漢江辺의 기적을, 나아가 祖國 近代化를 우리 產業人들이 성취하였다는 사실을 歷史教科書에 기록하여 後孫에게 알리고 產業人을 賤視하였던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여야 한다.

民主社會에서는 職業에 貴賤이 있을 수 없다. 產業政策樹立과 그 시행을 비롯하여 產業體의 운영을 우리 產業人이 하여야 한다. 즉, 產業界의 自治權이 확립되어야 民主化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능을림픽에서 우리 技能工들이 日本·獨日등을 제치고 과거 8년간 계속 세계 제패를 하였고 또한 계속 綜合優勝을 할것을 누구도 의심치 않을 만큼 월등하게 우수한 자질을 갖고 있다. 그 기능공들이 外國에 비하여 賤待받는 이유는? 官廳에서 會社에서 또한 건설현장에서 생산공장에서 기능직이 사무직보다 대우를 못 받는 이유는? 작업복을 입고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가? 벵타이를 매고 책상에서 사무를 보아야 선비 접대를 받고 출세할 수 있는 이 社會制度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民主社會라고 할 수 있다.

漢江辺의 奇蹟을 창조한 직후, 產業人들이 모여 產業人 地位의 再評價와 이러한 社會的 모순을 바로 잡는데 앞장서며 상부상조하고 祖國近代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74년 10월에 한국엔지니어클럽을 창립하였다.

日帝時 日本人 企業체에는 韓人技術者의 취업이 금지되어 있어서 해방후 日本人들이 물러간 후 그 產業體는 謀利輩의 手中에 들어갔고 지금도 非產業人들이 운영하고 있다. 오늘날 銀行, 病院, 大學, 研究所는 國立·私立 할것없이 銀行家, 醫師, 教授, 學者들에 의하여 각각 운영되고 產業體만은 非產業人이 운영하고 있다. 이

不條理에 관하여 野黨마저 침묵을 지키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某新聞社의 經濟部長에게 물었더니 「野黨도 執權하면 財閥과 밀착하고 國家企業體를 占領支配하기 위하여」라는 대답이었다.

### ◇ 產業과 科學技術의 發展

英國의 제임스 왓트가 蒸氣動力을 발명하고 18세기 후반에 產業에 動力을 이용함으로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近代產業이 탄생하였다. 즉 科學技術이 近代產業의 어머니이다. 그후 2세기동안 科學技術이 산업발전의 源泉的 역할을 하고, 같이 발전하고 같이 성장하면서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頭腦產業·尖端產業이 발달되면서 그 관계는 더욱 深化되었다. 尖端技術을 專攻한 高級頭腦들이 그 尖端產業體를 직접 운영하여 日進月步하는 科學技術이 지체없이 企業체에 도입됨으로 產業體 發展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尖端產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近代產業에서도 科學技術이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므로 非產業人의 企業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산업뿐만 아니라 科學技術 發展에 장애가 되고 있다.

美國이 세계에서 가장 큰 貿易赤字國이고 日本이 가장 큰 黑字國이다. 그러나 科學技術 輸出入만 보면 美國이 단연 제일 큰 黑字國이고 日本이 제일 큰 赤字國으로 되어 있다. 科學技術의 源泉은 美國이고 日本은 技術을 導入하여 產業活動에 성공한 나라이다. 우리나라에서 源泉技術導入이 力說되고 있지만 잘 안되며 日本의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도 非產業人이 產業을 經營하고 있기 때문이다.

百萬產業人의 士氣振作, 總和團結, 地位向上을 위하여 企業과 經營이 분리되어 產業體의 民主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產業人이 產業政策 수립에서 그 시행까지 담당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產學協同이 잘 이루어져서 科學技術과 產業이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先進祖國 創造가 촉진된다고 筆者는 주장하였고 또한 주장한다.